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lt;12&gt;

## 제주한란

• 학명 *Cymbidium kanran*  
Makino

나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10년 동안을 살았던 적이 있다.

서귀포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갖가지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한란의 자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한란은 추울 때에 꽃이 핀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한란은 10월경부터 꽃을 피우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갖게 한다. 모든 풀과 나무들이 우거진 모습을 보이는 여름을 버리고, 왜 한란은 저



글쓴이 · 김재황  
사 진 · 자연보존협회

물어 가는 겨울에야 꽃을 피우는 것일까.

그런 역경을 견디면서도, 한란의 꽃은 더 없는 기품을 보인다. 마치 몇 마리의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며 허공을 날고 있는 듯하여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하게 된다. 향기도 좋으려니와 꽃의 색깔도 다양하여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한란은 한라산 남쪽의 늘푸른나무 숲 속에서 만날 수 있다. 1967년 7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몰래 채취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튼 작은 한 포기 한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한라산을 안고 있는 듯한 큰 마음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선문대할망의 전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선문대할망은 한라산 오백장군의 어머니인데,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하며, 그에 걸맞게 힘도 아주 세었다 한다. 그는 삼으로 일곱 번 흠을 파서 던져 한라산을 만들었고, 그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흠들

은 작은 산이 되었다. 그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워서 다리로 바닷물에 물장구를 쳤다고 하니, 다만 놀라울 뿐이다.

선문대할망은 자신의 키가 그토록 큰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듯싶다. 그는 제주도에 있는 깊다는 물을 찾아다니며 그 깊이를 재어 보기로 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에 발을 담그자, 겨우 발등 위에서 물이 찰랑거렸다. 더 깊은 곳을 찾아서 서귀포 서흥리의 흥릿물에 들어서니 무릎까지 차 올랐다. 그는 다시 한라산 물장오리로 가서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 곳의 물은 깊어서 그의 키를 훌쩍 넘어 버렸다. 그는 그 만 목숨을 잃었다 한다.

아. 한란의 가슴에 그 선문대할망의 마음이 남겨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 큰 모습이 이제는 한 포기 작은 한란으로 변해서, 그의 오만함을 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굳이 추운 시기를 택해서 꽃을 피우는 것일 성싶다. ♣